

농어촌공사 칠곡지사, 녹조 방제·현장 안전교육 강화

✎ 김철희 기자 | ㉠ 승인 2026.07.30 14:59



녹조제거제 살포한 모습. 사진=칠곡지사 제공

[칠곡(경북)=데일리한국 김철희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가 농업용 저수지 수질 관리와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활동을 잇달아 추진하며 ESG 경영 실천에 나섰다.

칠곡지사는 29일 칠곡군 동명면 동명저수지에서 녹조 방제 작업을 실시했다. 이번 작업은 상류 오염물질 유입과 고수온의 영향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녹조를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드론을 활용해 친환경 녹조 제거제 200kg을 수면에 살포했다.

특히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중시하는 ESG 경영 실현을 위해 친환경 제거제를 사용해 환경 부담을 최소화했다.

칠곡지사는 지역 내 농업용 저수지 5개소를 대상으로 매월 두 차례 녹조 집중 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도 동명저수지에서 '내 고향 물살리기'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는 등 지속적인 수질 개선과 환경보전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같은 날, 칠곡군 관내 배수장에서는 수리시설감시원을 대상으로 현장 밀착형 안전교육도 실시했다.

기존 회의실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근무 현장에서 배수장 가동과 수문 조작 시 유의사항을 직접 점검하고, 우기와 폭염에 대비한 시설 관리 요령과 온열질환 예방 수칙, 비상연락망 운영 및 위험 상황 대응 절차 등을 집중 교육해 현장 대응 능력과 안전의식을 높였다.



김철희 기자 chk1500@naver.com